

At the end of Romans 11, Paul gave a stirring doxology, praising God for his unsearchable wisdom and the wonders of his marvellous plan of salvation. In his original letter, Paul continued right on into a conclusion, signalled by the word “Therefore.....”. In Romans 12: 1, Paul says, in effect, “Therefore, because God is so amazingly rich in wisdom, glory, love and mercy (as I have shown in the first 11 chapters of my letter), I urge you, brothers and sisters, to offer yourselves as living sacrifices, holy and pleasing to God, which is only your logical, reasonable act of worship”.

바울은 로마서 11 장 끝부분에서, 하나님의 헤아릴수 없는 지혜와 구원의 경이로운 계획의 신비함을 칭송하는 감동적인 찬미의 시를 주었습니다. 바울은 그의 서신 원본에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신호를 알리며, 계속적으로 결론을 이끌어 갑니다. 로마서 12 장 1 절에서 바울은 실제로 “그러므로 하나님이 지혜와 영광과 사랑과 자비가 지극히 놀라울 만큼 풍성하시니 (내가 11 장 첫부분에서 보였듯이),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Paul’s message in Romans 12: 1 is captured beautifully by Isaac Watts in the final verse of his hymn “When I Survey the Wondrous Cross”:

“Love so amazing, so divine,
Demands my soul, my life, my all.”

That is what Paul urges us to do as our reasonable, rational, logical service to God. Unfortunately, some English translations obscure the point Paul is making here. They refer to this offering of ourselves as our “spiritual worship” or “true and proper worship”. The Greek word used is literally “logical” (logican). Paul says that this offering of ourselves is “logical” or “rational”. This means, first, that it is only in light of God’s mercy that offering our whole selves can be seen as rational, or logical. And second, it means that clear thinking on this subject concludes that the only logical response is to make such a sacrificial offering of our lives. Once you have a good view of God’s mercy, (the view you have as you stand at the foot of the cross and see his Son dying there for you) anything less than a total, complete sacrifice of yourself to God is completely irrational! If you give yourself partially or half-heartedly, you are simply not thinking – you are not looking at what Jesus did for you.

로마서 12:1 절의 바울의 메세지는 아이작 와츠의 찬송 마지막 구절에서 아름답게 응용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경이로운 십자가를 그려볼때”

“그 사랑은 너무도 놀랍고 너무도 성스러워, 나의 영혼, 나의 삶, 나의 모든 것을 요구하네.”

그것이 바로 바울이, 합당하고 이치에 맞고 논리적으로 타당한 하나님에 대한 헌신으로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몇몇 영어번역에서는,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점을 모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자신을 드리는 것을 “영적 예배”나 “진심으로 드리는 적절한 예배”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사용된 그리스 단어는 실제로 “logical”(Logican) 입니다. 바울은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하고” “이치에 맞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선, 우리 자신 전부를 드리는 것이 타당하고 이치에 맞는 것으로 보여질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자비의 빛안에 있을때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우리가 이 주제에 대해 똑바로 생각한다면, 이에 대한 유일하고 합당한 우리의 반응은 우리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것으로 결론 짓게된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바른 관점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이 십자가의 발아래 서서 여러분을 위해 죽어가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고 있다는 관점), 모든 것을 포괄하고 완전한 여러분의 희생이 아닌 다른 어떤 것도 온전한 것이 아닐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부분적으로, 반쪽의 마음만으로 여러분을 드리고 있다면, 여러분은 단순히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하신 일을 보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When Paul says “offer your bodies as living sacrifices”, he uses the tense of the verb, which refers to an action that is taken once and for all. It is not something you do over and over again. Once you offer your body to God as a living sacrifice, you do so for life, and the rest of your life is lived on that basis. It is amazing, isn’t it, that God would even want our bodies? Earlier in Romans, Paul has said that the body is the home of what he calls “the flesh”, that sinful, rebellious nature within us that does not want to do what God wants. Sin expresses itself through our bodies – through our hands, our eyes, our mouths and so on. And our body is the part of us that grows weak and frail with age. Yet God wants us to offer our bodies to him. And when we do so, our bodies become holy and pleasing to God. Paul is not saying that we must get our lives cleaned up before we offer ourselves to God. Instead, God says to us, “Come as you are. I am the answer to your problems, so start with me. You can’t solve your problems by yourself – let me come into your life and I will make you clean”.

바울이 “너희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라고 말할때에는, 단 한번에 모든 것을 위해 취해진 행동을 말한 동사의 시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계속해서 반복하여 하는 뭔가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여러분이 여러분의 몸을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면, 여러분의 일생에 걸쳐 그렇게 한 것이고, 여러분의 남은 생애는 그것에 근거해 살도록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몸까지 원하신다는 사실은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로마서의 초기에 바울은, 몸은 그가 “육신”이라고 부르는 집,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지 않으려는 우리안에 있는 죄악과 거역의 본성이라고 하였습니다. 죄는 우리의 몸-우리의 손들과 눈들,

우리의 입들을 비롯한 여러가지를 통하여 표현됩니다. 또한 우리의 몸은 우리가 나이 들수록 허약하고 힘을 잃게 되는 우리의 일부분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몸을 그분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할때, 우리의 몸은 거룩해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스스로를 드리기 전에 우리의 삶이 정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오라. 내가 너희 문제들의 정답이다. 그래서 나와 함께 시작하자. 너희는 너희 문제를 스스로 해결 할수 없다 - 내가 너의 인생에 개입하여 너를 깨끗케 할 것이다.”

If we put verses 1 and 2 of Romans 12 together, we can see what God does with the living sacrifice we offer him. Paul says that we must do the rational, logical thing with our bodies and present them to the Lord, once and for all. In response God says, “Very good, I accept this sacrifice you have given me. It is holy and pleasing to me. Now there are 2 things you must do on an ongoing and continual basis. First, you must make sure, on a daily, continual basis, that you no longer conform yourself to the pattern of this world. Second, you must allow yourself to be transformed by the daily, continual renewing of your mind”. Whereas Paul’s urging us to offer our bodies was stated in the once-for-all aorist tense, his command to not conform but be transformed is stated in the present tense. We are to do this continually and daily. You bring your body to God once and you base the rest of your life on that commitment. But you refuse conformity with the world and seek transformation by the renewing of your mind in an ongoing way.

우리가 로마서 12 장 1,2 절을 함께 묶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가 그에게 드린 산 제물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볼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타당하고 마땅히 해야 할 일로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단 한번에 모든 것을 위해 드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서 하나님은 “매우 잘 하였다. 나는 너희가 드린 이 제물을 받아들일 것이다. 그것은 거룩하고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다. 이제 너희가 계속적으로 끝까지 해야하는 두가지 일들이 있다. 첫째는 너희는 날마다, 지속적으로 이 세상의 패턴을 더이상 본받지 말 것이며, 둘째는 날마다 지속적으로 너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되도록 해야한다.” 바울의 우리 몸을 드리도록 하는 촉구가 한번에 모든 것을 하는 고대의 과거 시제를 써서 언급된 반면, 본받지 말고 변화하라는 바울의 명령은 현재 시제로 언급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를 날마다 지속적으로 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단 한번에 드리고 남은 인생은 이에 기초하여 살게 되는 것이지만, 여러분은 계속하여 세상의 것과 타협함을 거부하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되기를 추구해야 합니다.

The phrase “the pattern of this world” literally means “the schemes of this world” – the blueprint, the purposes and the values that ungodly people use as their game plan for living. Paul is saying, “Don’t let the dead values, goals and philosophies of this world squeeze you into their mould. Don’t become caught up in the spirit of this decaying, dying age”. The spirit of the age is always the same. It never changes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The basic pattern of this world is the gratification and advancement of self – of me. People everywhere, and in all times, live for self. They are on an ego trip! They are ambitious to exalt themselves in the world, to accumulate wealth and power for themselves, to make themselves look good, to make themselves the envy of everyone around them.

“이 세상의 패턴”이란 말은 한마디로 “이 세상의 계약” -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살면서 전략 계획처럼 이용하고 있는 청사진, 목적, 가치들을 말합니다. 바울은 “세상의 죽은 가치들과 목표들과 철학들이 그들의 공평이 안으로 너희를 짜들어가지 않도록 하라. 이 썩어가고 죽어가는 시대의 정신에 붙들리지 않도록 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정신은 언제나 똑같습니다. 그것은 결코 세대를 거치더라도 변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기본 패턴은 자기 (나의) 만족, 자기 향상입니다. 사람들은 어디서든, 늘 자기를 위해 삽니다. 그들은 자기도취의 여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자신을 높이고, 자신들을 위한 부와 힘을 축적하고, 그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기를 갈망합니다.

The pressure to conform pervades all of society. Even in the church, we find ourselves talking, thinking and living according to the ways of this world. Our dying culture shouts at us through our computers, phones, TV sets, newspapers and magazines, our neighbours and co-workers, “Conform!” Though we must invariably pay a price for resisting the pressure of the world to conform, we must not yield. In order to stand up against the pressure that is trying to squeeze us into a worldly, self-centred mould, we must obey the next command: “Be transformed by the renewing of your mind”.

세상에 순응하라는 압박은 사회 전체에 퍼져있습니다. 심지어 교회에서도 우리는 이 세상의 방식으로 말하고, 생각하고, 사는 우리를 발견할수 있습니다. 우리의 죽어가는 이 문화는 컴퓨터, 전화기, TV, 신문과 잡지들, 우리의 이웃과 동료들 통해 “따르라!”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세상을 본받기를 원하는 압박에 저항하기 위해 계속해서 값을 치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굴복해서는 안됩니다. 우리를 세상적, 자기 중심적 공평이 덩어리에 썩여넣으려는 그 압박으로부터 벗어나기위해서 우리는 다음의 명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너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되어야”

Our thinking has to change! We can’t go on thinking the way the world thinks. If our thinking doesn’t change, we will inevitably find ourselves becoming conformed to the pattern of this world. What kind of transformation does Paul have in mind? How should our thinking change? There is only one way to acquire the kind of mind that will see through the destructive schemes of the world – we must have what the Bible calls “the mind of Christ” (1

Corinthians 2: 16). That means that we must learn to think and perceive as Jesus did. We must focus on what is truly important, eternally important – not on the meaningless, temporary things that the world prizes so highly like money, status, fame, power and pleasure. The mind of Christ seeks to advance God’s kingdom, not the kingdom of self, my own little kingdom. The mind of Christ says, “Not my will, Lord, but yours be done”. You can’t have the mind of Christ unless your mind is being renewed every day.

우리의 생각은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계속 생각하며 살수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회피할수 없이 세상을 본받아가는 우리 스스로를 발견하게 될것 입니다. 바울의 마음에는 어떤 종류의 변화를 말하고 있었을까요? 우리의 생각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할까요? 세상의 파괴적인 계획을 뚫어 볼수 있는 그런 마음을 얻기 위한 오직 한가지의 방법만이 있습니다 –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고린도 전서 2:16)을 반드시 가져야만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생각하고 인식하는 법을 배워야 함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무엇이 진실로 중요한지, 영원히 중요한 것인지에 중심을 두어야 합니다 – 세상이 높이 사고 있는 돈이나 지위나 명성, 권력과 즐거움과 같은 의미없고 일시적인 것이 아닌. 그리스도의 마음은 나만의 작은 나라, 자신만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넓히기를 찾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내 뜻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날마다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고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수 없습니다.

How do we renew our minds? Through reading and studying the Bible. Through fellowship with other Christ-minded believers. Through memorizing parts of the Bible. Through listening to God’s Word being preached and explained. That is why expository preaching covering the whole Bible is so crucial!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수 있을까요? 성경을 읽고 공부함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믿는자들과 함께 교제함으로, 성경구절을 암송함으로, 설교나 설명이 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입니다. 이는 전체 성경 말씀을 간과하는 해석이 있는 설교를 듣는 것이 왜 그토록 중요한지에 관한 이유입니다.

In times of confusion, in times of rapid cultural and social change, we need to renew our minds by listening to God’s Word and allowing his thoughts to become our thoughts. Our goal is to find out what God says is true, not what everyone around us claims is true. The human-centred philosophies of this world are destroying souls, ruining families, and tearing apart the moral fabric of our nation. Only the truth of God’s Word can mend souls, families and societies. The question is what are you going to do with the rest of your life? Are you going to spend the days you have left on self-gratification and self-worship, as the world urges and tempts you to do? Or will you invest the time God has given you for rewards that will last an eternity? The answer depends on your response to Paul’s urging in Romans 12: 1-2. Are you willing to offer your body to God as a living sacrifice? Are you willing to reject the brainwashing of this world and live as a Christian non-conformist? Are you willing to be transformed by the daily renewing of your mind, so that you will view this world with the mind of Christ?

이 혼란의 시기에, 이 급격한 문화적, 사회적 변화의 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 될수 있도록 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진리라고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무엇이 진리라고 말했는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세상의 인간 중심의 철학은 영혼을 파괴하고 가족을 무너뜨리고 우리 민족의 도덕심을 갈기 갈기 찢어놓습니다. 문제는 여러분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위해 무엇을 하겠는가 입니다. 세상이 그것을 하도록 부추기고 유혹하는 대로 자기 만족과 자기 숭배를 하며 남은 날들을 보내시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히 존속될 상급을 위해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주신 시간들을 투자 하시겠습니까? 그 답변은 바울이 로마서 12:1-2 절에서 촉구하고 있는 것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기꺼이 드리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세상의 세뇌를 거부하고 비순응자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되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시겠습니까?

From verse 3 to the end of chapter 12, Paul talks in specific terms about what it means to be transformed by the renewing of your mind, beginning with how we view ourselves. Paul says in v. 3: “to every one of you: Do not think of yourself more highly than you ought”. We are to avoid being “high-minded” about ourselves. Despite all the warnings our culture gives about the danger of low self-esteem, the real danger is self-centredness – being egocentric. We are all prone to exaggerate our own wisdom, competence, sincerity and power. As Christians we must avoid this. C.S. Lewis said he knew of no one, except Christians, who ever admitted to being proud and conceited. We must always be on the lookout for this danger. We need to accept what we are not, what we cannot do – which opens us up to being able to rely on others.

바울은 3 절부터 12 장 끝에 걸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관해,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를 바라보아야 하는가로 부터 시작하며,구체적인 용어들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3 절에서 “너희 각 사람에게에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우리는 우리 자신에 관해 “높은 관점의 마음을 가진”자로 보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오늘날의 문화가, 낮은 자존감으로 인한 위험에 관한 온갖 경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큰 위험은 자기 중심적-자기

몰입입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의 지식, 유능함, 신실함과 능력을 과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모든 믿는자들은 이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씨 에스 루이스는 그가 자만하고 우쭐대던것을 인정한 그리스도인들을 제외하곤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 위험을 경계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아닌 것과, 우리가 할수 없는 것을 받아 들여야 합니다 - 이는 우리가 마음을 열어 다른 사람들에게 기댈수 있도록 가능하게 하는 것이지요.

But equally, Paul says, “but rather think of yourself with sober judgment”. To be sober means to be strictly accurate, completely in touch with reality. Paul does not say here: “Be humble” or “See others as better than yourselves”. At this point he is warning us against thinking less of your abilities than is warranted. We need to acknowledge what we are good at and what we can do – because doing this makes us able to serve others. We are to think straight about ourselves – neither too low nor too high. As soon as Paul tells us to think soberly, he tells us to do so “in accordance with the measure of faith God has given you”. He then goes on to give us another way of thinking about ourselves – namely as persons with different gifts in one body. This is how to think of ourselves rightly.

그렇지만 바울은 동격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 자신을 엄중한 지혜를 가지고 생각하라”. 이 “엄중하다”란 완벽히 현실을 바탕으로, 엄격히 정확하게 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시점에서, 우리가 우리의 능력을 수여받은 것보다 작게 우리를 생각하고 있는 것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잘 하는 것과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을 인정해야 합니다 - 이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길수 있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 똑바로 생각해야 합니다 - 너무 낮거나 너무 높게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엄중히 생각하라고 하는 순간, 그는 우리에게 “각자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런 다음 계속해서 우리에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생각하는 또다른 방식을 제시합니다 - 이름하여 한몸에 다른 은사를 가진 사람들. 이것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바르게 생각하는 방식입니다.

Many people reading verse 3 have thought that by “the measure of faith” Paul means “the amount of faith” – that is, that Paul is saying that our opinion of ourselves depends on the amount of faith we have, God having given some people more faith than others. In the context of all Paul has been saying in Romans, though, that seems unlikely. Besides, the word translated “measure” is the Greek word “metron”, which most likely means a standard of measurement not an amount. In other words, Paul is saying, “All of you have been given your saving faith in Christ crucified, and that is how you are to measure yourselves”. That means that we need first of all to realize that we are all the same. Regardless of our race, background, abilities and so on, we are all saved in Christ. God loves us equally in Christ. The gospel prevents us thinking more highly of ourselves than we ought – we are sinners, and all our efforts earn only judgment, and we are saved entirely by God’s grace and kindness. And the gospel prevents us thinking in a more lowly way than we ought – we are saved sinners, and we are loved and valued in the eyes of the only One whose opinion ultimately matters – God himself. The first “measure” by which we evaluate ourselves is the gospel we believe.

3 장을 읽는 많은 사람들은 “믿음의 분량대로”라는 말을 바울이 “믿음의 양”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는 바울이 우리 자신에 대한 의견이, 하나님께서 몇몇 사람들에게는 다른 사람들보다 많은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믿음의 양에 달려있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로마서 전체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내용에 따르면, 거의 그럴 가능성이 없습니다. 게다가 “measure”이라고 해석된 그리스 단어 “metron”은 양이 아니라 측량의 기준을 의미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바울이 “너희 모두에게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구원의 믿음이 주어졌고, 이것이 너희 자신을 측량하는 도구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우리 모두는 똑같다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종과 배경과 능력과 기타의 것들과 상관없이, 우리는 모두 예수님에 의해 구원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동일하게 사랑하십니다.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그러해야 하는 것보다 우리 자신을 더 높게 보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의 모든 노력은 오직 심판을 부르고,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인해 구원되었습니다. 또한 복음은 우리가 스스로를 그래야 하는 것보다 더 낮게 여기는 것을 막습니다 -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이고 우리는 단 한분, 그분의 의견만이 궁극적으로 중요하고 그 하나님의 눈에, 우리 모두는 가치있고 사랑받는 존재인 것입니다.

Then, second of all, we are to think of ourselves as having distinct gifts and abilities within the body of Christ. In other words, we are all different, too. We are not clones. We are the same in our standing in the gospel, but we are different in our varied abilities to minister to each other. If the human body was one big eyeball or hand or foot or tongue, it would be “gross”, it would be disgusting. Yet some people seem determined to build a church that has just one kind of member. They seek uniformity instead of diversity. God says we are not just one member – we are many. His goal for the church is not uniformity, but unity in diversity. The only sameness there should be in the church is that we should all have the same love and caring for one another. If we love each other the same, then we will have a glorious unity in the midst of our beautiful diversity in the body of Christ. Again, this image of the body prevents us thinking more highly of ourselves than we ought (we need all the other members of our church) – and in a more lowly way than we ought (the other members of our church need us).

그런다음 무엇보다 두번째로는 우리는 스스로를 예수님의 몸안에 뚜렷한 은사와 능력을 가진 존재로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또한 모두 다릅니다. 우리는 동일한 개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안에서는 모두 같지만, 서로를 돌보는 다양한 능력에 있어서는 모두 다릅니다. 만일 인간의 몸이 하나의 큰 눈알이거나 손 하나 혹은 한 발, 아니면 혀로 되어있다면, 혐오스럽고 구역질나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몇몇 사람들은 교회가 한 종류의 집단으로 세워진 것으로 단정짓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다양성보다는 균일화를 추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단 하나의 지체가 아니라 우리는 많은 지체라고 하셨습니다. 교회를 향한 그의 목표는 균일화가 아닌 다양성 속에 존재하는 연합입니다. 교회에서 유일한 같음은 우리 모두 동일한 사랑을 가지고 서로를 돌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건데, 그 몸의 이미지는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를 마땅히 보아야 하는 것보다 더 높게 보는 것을 막고 (교회에서 우리는 다른 모든 지체들이 필요합니다) – 또한 우리를 더 낮게 보는 것도 막아 줍니다 (우리 교회의 다른 지체들은 우리를 필요로 합니다).

“We have different gifts”, Paul reminds us. And crucially, we need to remember that these gifts come to us “according to the grace given us” (v. 6a). God’s grace is not only seen in him giving us righteousness – it is also seen in him giving us gifts and abilities. And these are given not for our own self-service but to be used for the good of the body to which we belong. So the second way to get a correct view of ourselves is to remember to whom we belong – to our church body: not to ourselves, because we belong to Christ, the head of the body – and then to get to work in ministry, finding out what God has equipped us to do best, and doing it with all our might!

바울은 우리에게 “우리는 서로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상기시켜 줍니다. 그리고 중요하게는, 그 은사들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6 절 첫부분) 우리에게 온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의를 주신 그 안에서 보여질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은사와 능력을 나눠주신 그 안에서도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우리 자신을 섬기기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속해 있는 그 몸의 선함을 위해 사용되어 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스스로를 보는 올바른 관점을 갖는 두번째 방법은 우리가 우리 교회의 몸에 속해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속한것이 아니라, 그 몸의 머리인 그리스도께 속했기 때문에 – 그러다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에 가장 잘 사용하실지를 찾아 사역에 착수하고, 우리의 전능자와 함께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In vv. 6b-8 Paul lists a selection of gifts that God gives to different members of his people. This list is not complete (and neither are the other lists in 1 Corinthians 12: 8-10, 28 or Ephesians 4: 11). In the passage we read from 1 Peter 4, Peter seems to tell us that there are actually 2 different classes of gifts – speaking and serving. In Romans 12, Paul lists 4 gifts that have to do with speaking. The first is prophesying – the gift of expounding Scripture, of making the meaning of God’s Word come alive. This gift is to be used in “proportion to his faith”. In other words, the person using the gift is to stay within the limits of what he knows. As he grows in his understanding of Scripture, he will grow in his ability to make God’s Word clear and vibrant, so that others may apply it to their lives. The second is teaching which is the gift of making truth clear and understandable. A good teacher may not be a good preacher and vice versa. And teaching gifts can vary greatly – some are better in small groups, others in large groups, some with children, some with peers or the elderly and so on. The third is encouragement. One person in the New Testament who had this gift was Barnabas, whose name means “son of encouragement”. In the book of Acts, you will always find him with his arm around people, encouraging, comforting and urging them on. Finally, there is leadership. The original Greek word here means “leading meetings”. When you use this gift, Paul says, use it with diligence. In other words, conduct your meetings in a thoughtful, well-planned and orderly way. The gift of leadership is a great gift, much in need in the body of Christ.

바울은 6-8 절에서 하나님이 그의 백성의 각각 다른 지체들에게 나눠주신 은사의 목록을 열거합니다. 이 목록은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베드로전서 4 절 1 장에서 베드로는 사실 2 가지의 다른 은사의 그룹 – 전하는 것과 섬기는 것이 있다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2 장에서 전하는 것과 관련된 4 가지의 은사를 열거했습니다. 그 첫번째 것은 예언하기 –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생동감있게 성경을 해석하는 은사. 이 은사는 “믿음에 비례”대로 사용되어질 것입니다. 바꿔말하면, 그 은사를 사용하는 사람은 그가 아는 범위의 한계 안에서 머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성경에 대한 이해가 자랄수록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분명하고 생동감 있게 만드는 능력도 자라,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삶속에서 그것을 적용하도록 하게 할 것입니다. 두번째는 가르치는 은사인데 이는 진리를 확실하고 이해할만한 것으로 만드는 은사입니다. 좋은 선생이 다 좋은 설교자가 아니듯이 좋은 설교자가 다 좋은 선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은사는 매우 다양할 수 있는데 – 몇몇은 소그룹에 강하고 다른 이들은 큰그룹에, 몇몇은 어린이들과, 몇몇은 동료들과 혹은 장로들이나 기타 사람들에게 더 맞습니다. 세번째는 권고의 은사입니다. 신약에서 이 은사를 가진 사람은 바나바였는데, 그의 이름은 “권고자”라는 뜻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여러분은 그가 사람들에게 팔을 두르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들을 복돋아 주었던 것을 언제나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리더들이 있습니다. 원래 그리스 어로 “모임을 이끌다”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러분이 이 은사를 사용할때, 열심을 다하여 사용하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의 모임을 사려깊고, 잘 계획하여 질서있게 이끌라는 것입니다. 이 리더의 은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많이 필요한, 훌륭한 은사입니다.

And Paul lists 3 gifts that have to do with serving. First, there is serving, which is probably the same as the gift of helping others listed in 1 Corinthians 12: 28. Serving can take many forms from serving as a deacon or welcomer to serving morning tea or cleaning the toilets. The gift of serving is the ability to help others with such a cheerful spirit

that both the servant and the served are blessed by it. The second is giving, or “contributing to the needs of others”. God gives some people a generous heart that is always giving, giving, giving, without any thought of being repaid. If that is your gift use it. The more you use the gift of giving, the more God will give you to distribute to others. Finally, there is showing mercy. This is a marvelous gift and there are many ways to use it: in ministry to the sick, to handicapped people, to the aged, to the homeless, to shut-ins, to prisoners, to widows and orphans and so on. All across our society, there are people with needs and hurts, people who need mercy.

그리고 바울은 섬기는 것과 관련된 세가지 은사를 열거합니다, 첫째는 고린도전서 12:28 절에 열거된 다른 사람을 돕는 은사와 아마도 같은, 섬김이 있습니다. 섬김이란 집사로서 섬기는 것으로 부터 모닝티로 혹은 화장실 청소까지 많은 형태가 있을수 있습니다. 섬김의 은사는 그 섬기는 자와 섬김을 받는 자가 모두 활기찬 기운으로 다른 사람을 돕는 능력입니다. 둘째는 베푸는 것 혹은 “다른 사람의 필요에 기여하는것”입니다. 하나님은 몇몇 사람들에게 돌아올 것을 생각하지 않고 언제나 베풀고 베풀고 베푸는 관대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만일 그것이 여러분의 은사라면 그것을 사용하십시오. 여러분이 베푸는 은사를 더 사용할수록, 하나님은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도록 더 많이 부여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자비를 베푸는 은사가 있습니다. 이는 정말 훌륭한 은사이고, 많은 방면에 쓰일수 있습니다: 병든자에게, 신체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나이든 사람에게, 집없는 사람에게, 집에 갇힌 사람에게, 죄수들에게, 고아나 과부, 기타 등등의 사람들에게.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도움이 필요하고 상처받은 사람, 자비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There are thus two basic functions that believers in the body of Christ are expected to fill: either you speak or you serve. Of course, some people do both – a leader and encourager, for example, may also be a giver. The point is that everyone is expected to be involved, using the gifts God has given them, for the common good of the body, to build it up. If you are not speaking or serving, you are not using your gifts. I encourage you to study the spiritual gifts, discover which gifts you possess, and start putting your gifts to good use in service to God and his church. Part of living as a sacrifice to God is to give our abilities and gifts to him, to be used in his service. And we will only do this joyfully as we keep his mercies to us in Jesus Christ clearly in view.

그러함으로, 그리스도의 몸안에 있는 믿는 자들이 수행하도록 기대되는 두가지 기본 역할이 있는데요: 전하거나 섬기는 것입니다. 물론 몇몇 사람들은 둘다 합니다 - 예를 들면 지도자와 권고하는 자는 또한 베푸는 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사용하며, 그 몸의 공통의 선한 목적을 향해, 교회를 세워가는데 연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전하거나 섬기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은사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이 영적 은사를 공부하여, 어느 것이 여러분이 가진 은사인지를 발견하고, 하나님과 그의 교회를 섬기는데 잘 사용될수 있는 곳에 여러분의 은사를 놓기 시작하기를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제물로서 사는 삶은 일부는 우리가 그분께 우리의 능력과 은사를 그의 사역에 사용되도록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자비가 임함을 확실히 마음에 새김으로, 오직 이를 기쁨으로 해야만 합니다.

Amen

Prepared by Rev. Grant Lawry, Canterbury Presbyterian Church, Canterbury, Melbourne, Australia for use of the Canterbury congregation.